

지령 150호를 맞아...

편집인 칼럼



· 羅 柄 扇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월간 〈國防과 技術〉은 지난 70년대 후반—
 “왜 우리에게만 이웃나라들 처럼 훌륭한
 군사잡지가 없는가”하는 시대적이요, 현실적인 요청에 의해
 1979년 1월 1일 창간호를 선보인 이래
 이제 열세개의 햇바퀴 궤적위에
 지령(誌齡) 150호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월간 〈국방과 기술〉은 국내 유일의
 군사전문잡지로서 최신 병기기술 정보와 각종 국내외
 국방뉴스 및 동향을 우리 軍은 물론 관련기관 및
 관계인사들과 일반 독자층에 전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과 자주국방 건설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150호를 맞는 오늘에 되돌아볼때, 기술정보 위주로만
 구성되어 오지 않았었나 자문(自問)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술정보 뿐만 아니라
 경제정보와 산업계의 소식에도 비중을 둘 것입니다.
 또한 국방부의 동정과 함께 정책이나 지침을 소개하고
 업체의 소리를 대변해주어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 구상에 따라 지난 5월호에 「국방부 동정」을
 최초로 게재한바 있으며, 前月號에는 창간이래 처음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자체 기술개발사례를 소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방위산업의 풍부한 정보와 자료가 담긴
 전문 경제誌요, 산업정보誌가 되도록 성격을 바꾸어나갈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제호(題號)도 알기 쉽고, 듣기 쉽게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칼라(內紙)의
 증면(增面)등 총체적인 시각 이미지 개선에 착수하여
 “읽히는 잡지”, “보는 잡지”가 되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령 150호를 분수령으로 하여 월간 〈국방과 기술〉은
 급변하는 시대의 추이와 변화에 맥을 같이 하며
 새롭게 태어나는 자세로서 변신을 거듭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잡지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과
 깊은 사랑을 보내주신 관계기관과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가운데서도 훌륭한 옥고(玉稿)를
 건네주신 여러 필자분들께도 지면을 빌어 먼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제는
 중화학공업
 선도를 지향하는
 산업정보誌로
 탈바꿈 될때...